



○ 진흥원 소개

○ 평생교육 주요사업

Section1.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1. 문해교육센터 운영	12
2. 남도학 첫걸음	16
3.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19
4. 생활 밀착 기술 교육	22
5.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24
6. 「인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도민교육	31

Section2.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홍보 강화

1.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34
2. 동네방네 배움툼 운영	37
3.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39
4. 평생학습 소식지 웹진	40
5.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52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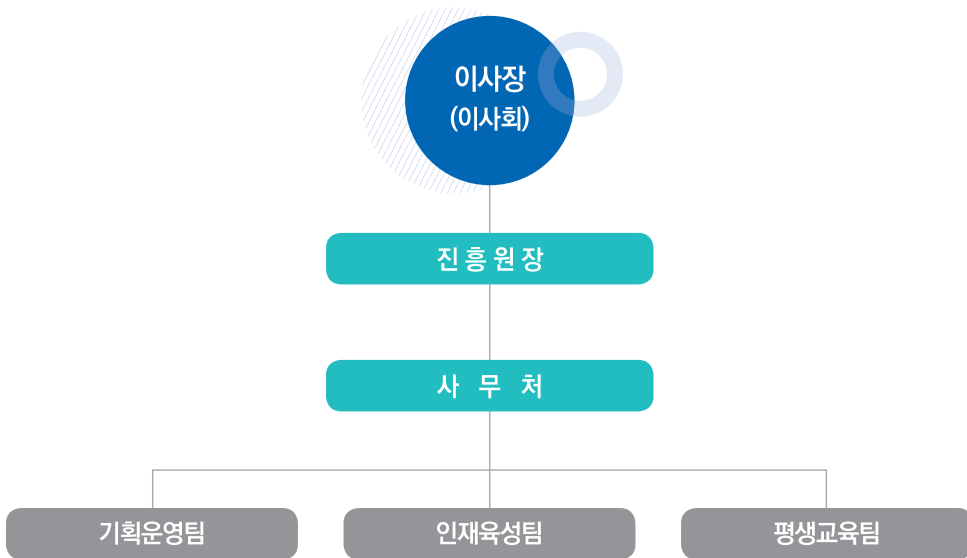


원 장 | 손점식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 연 혁 |
- 2008년 12월 전남인재육성재단 법인 설립
 - 2009년 2월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 2014년 3월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 2016년 12월 전남인재육성재단-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위수탁 협약 체결
 - 2018년 10월 전라남도문해교육센터 지정
 - 2020년 7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통합 출범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 통합)

● 조직구성



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전남

● 비전 및 목표



MISSION

“ 미래를 선도할 전남형 혁신인재 양성과 도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

VISION

도약하는 전남을 위한 창의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사회 구현



목표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역이 되는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도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활성화

○ 정책영역 및 추진전략

장학 사업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장학지원
- 기부문화정책과 확산으로 장학기금 조성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 관리 지원 체계 구축

인재육성 사업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형 인재양성 기반 구축
- 지역·산업별 스마트 인재육성 모델 발굴 및 지원
- 글로벌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모델 구축 및 지원

평생교육 사업

- 지역사회 참여형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도민 중심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추진 역량강화 및 인프라 확대

| 2020년 주요사업 |

Section
01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문해교육센터 운영

사업목표	우리 도 문해교육 총괄 기관인 '전라남도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의 체계적 지원
추진기간	2020. 1. ~ 12.
사업대상	문해교육 관계자 및 학습자
추진방법	직접추진 및 공모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의 달 행사 추진-영상으로 만나는 문해교육 시화전 • 전남형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보급 • 중학교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 2020년 전라남도 성인문해능력조사 • 문해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전라남도 문해교사 보수교육 운영

○ 남도학 첫걸음

사업목표	전남의 문화, 역사 등을 담은 남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
추진기간	2020. 1. ~ 12.
사업대상	평생교육 및 지역학 관련 기관·단체
추진방법	전문기관 위탁운영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도학 프로그램 교재 개발·보급 및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 기관 협약 체결(5개소) - 남도학 프로그램 운영(7월~12월)

○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사업목표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적 생활태도와 행동양식 습득·함양
추진기간	2020. 9. ~ 12.
사업대상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 시민성, 공동체 등 시민책무, 지역갈등예방,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

○ 생활 밀착 기술 교육

사업목표	기술학습과 커뮤니티 구축 형태의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지원해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기회 제공
추진기간	2020. 1. ~ 12.
사업대상	평생교육 기관·단체, 협동조합 등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기관(단체) 선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 자립적 경제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기술 교육 지원 • 생활밀착형 기술 교육을 통한 동아리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제공

○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목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사회 공헌이 가능한 우수 학습동아리 발굴·육성
추진기간	2020. 1. ~ 12.
사업대상	도내 학습동아리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학습동아리 선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헌이 가능한 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한 활동비 지원 - 분야 : 재능기부, 일자리연계, 지역연구 • 학습동아리 공동체 형성 및 학습 결과를 활용한 사회환원 활동 • 학습동아리 워크숍 및 컨설팅을 통해 동아리 역량강화 지원

○ 「인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도민교육

사업목표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추진기간	2020. 7. ~ 11.
사업대상	도민, 공무원 등
추진방법	시·군과 연계한 공동교육(특별강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문제(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도민과 인식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 시군과 연계한 전문가 특강 개최

Section
02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홍보 강화

○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사업목표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연계되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육성
추진기간	2020. 1. ~ 12.
사업대상	시·군(마을학교)
추진방법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계속지원 마을 확정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리더 육성 및 교육 • 주민의 학습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생활권 중심의 학습공간 제공 -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자발적 학습공동체 육성·지원 • 마을학교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특화 프로그램 발굴(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수익모델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배움 마을 학교 운영

○ 동네방네 배움틈 운영

사업목표	공공시설, 카페, 도서관 등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기부·전환해 도민의 평생학습 활동 활성화 여건 조성
추진기간	2020. 1. ~ 12.
사업대상	도민
추진방법	직접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평생학습활동 공간으로 지정·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나눔) 생활권 내 유휴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학습공간으로 활용 - (학습나눔) 공유 공간을 활용한 소그룹 평생학습 제공 및 소외계층 방문 실천학습 운영

○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사업목표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추진기간	2020. 8. 26. ~ 27.
사업대상	도내 평생교육 활동 강사 및 관계자
추진방법	직접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강사 전문성 향상 및 다변화 학습환경 대응 • 변화하는 평생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 평생학습 소식지 웹진

사업목표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홍보와 다양한 평생교육 소식을 온라인으로 알려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참여 기회 확대
추진기간	2020. 1. ~12.
사업대상	도민, 시군 및 타 시도 평생교육 관계자 등
추진방법	직접추진
사업내용	진흥원 소식, 추진사업, 평생교육 관련 이슈 등

○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사업목표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한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 및 평생학습 성과 확산
추진기간	2020. 8. ~ 11.
사업대상	도민
추진방법	직접추진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참여경험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작품접수 • 시상내역: 총 10명, 상장 및 시상금 수여

Section

01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1. 문해교육센터 운영
2. 남도학 첫걸음
3.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4. 생활 밀착 기술 교육
5.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6. 「인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도민교육

○ 전남형 문해교육 부교재 개발·보급

- 사업목적 : 문해학습자의 학습 이해도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우리 지역 학습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역 예시 반영
 - 교과서의 부족한 읽기, 쓰기 예시 및 연습내용 보완
- 배 부 처 : 도내 문해교육 기관 교사 및 학습자 4300여부
- 추진성과 : 코로나19로 자택 수업 중인 문해학습자의 가정 학습 교재로 활용



○ 문해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문해학습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20. 4. ~ 12.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지원기관 선정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문해교육 기관 프로그램 지원
- 지원규모 : 4개소 ※ 풀뿌리희망문화학교, 수정마을협동조합, 별교공공도서관, 해남군 직영
- 추진성과 : 농어촌 주민의 문해교육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 사업목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양성
- 사업기간 : 2020. 4. ~ 11.
- 연 수 명 : 중학교과정 교원연수
- 교육내용 : 문해교육개론 외 5개 과정
- 운영결과 : 중학교과정 문해교원 양성 11명



○ 전라남도 문해교사 보수교육 운영

- 추진목적 : 문해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문해교사 네트워크 구축
- 일시 및 장소
 - (동부권) 2020. 6. 18.(목) 14:00 / 순천만국가정원 컨퍼런스홀
 - (서부권) 2020. 6. 19.(금) 14:00 / 전남개발공사 대회의실
- 대 상 : 문해교육 교사 55명
- 교육내용
 - (동부권) 문해교육 아이디어 팩토리 / 강숙영(대전시민문화센터소장)
 - (서부권) 행복한 문해교실 레시피 / 정용란(용인시 문해교사)
- 추진성과 : 문해교육 현장 중심 교수법 교육으로 지역 문해교사의 전문성 및 자신감 향상 계기 마련



○ 2020년 전라남도 성인문해능력조사

- 사업목적 : 도민의 문해능력 측정을 통해 지역 문해교육 정책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통계 생산
- 추진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조사
- 조사대상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400명
- 결과활용 : 문해교육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03 참여자 소감

풀뿌리희망문화학교 / 기관 대표

코로나19로 인해 행정기관의 소모임 및 외출 자제 조치로 학습장소 마련이나 참여자 추가모집의 어려움에다 학습참여자마저도 출석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수업진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통하여 70, 80 평생 가슴에 담고 있는 배움의 설움과 한(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하고 답답함을 다소나마 달래드리려 노력했다. 소소한 재미거리로 우리의 전통천연염색과 버섯 키우기, 찻흙 공예, 종이 공예, 치매예방 뇌 블럭 등 체험활동으로 학습의욕을 북돋았다. 더불어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배움이 있고, 벗을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라는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호응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정마을협동조합 / 강사

한글 문해교육만 하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글공부 시간이 재미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좋은 웃음치료와 실버레크리에이션을 틈틈이 접목시켜서 운영했다. 또한 교통안전 표지판 읽기, 안전한 보행과 도로횡단 방법과 보이스피싱의 사례 및 대처법 등 생활문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찾은 휴강과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가지 못하여 자체 체험학습 코너를 만들어 실시한 결과 반응이 참 좋았다.

2 남도학 첫걸음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방법** : 위탁운영
- **사업규모** : 교재 개발 1식, 프로그램 운영 5개소
- **사업비** : 7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남도학 프로그램 교재 개발·보급 및 운영비 지원

02 사업 내용

○ (교재개발) 남도학 첫걸음 교재 개발 및 보급

- 추진기간 : 2019. 11. ~ 2020. 5.
- 추진방법 : 전문기관(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용역으로 교재 개발
- 교재구성
 - (1부) 남도의 자연, 남도인의 문화
 - (2부) 남도의 역사, 남도인의 기억들
 - (보론) 전남의 미래, 블루 이코노미
- 배부부수 : 500부(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 (협약체결) 대학 등과 협약으로 교육 전문성 제고

- 협약일자 : 2020. 3.
- 협약기관 : 5개소(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도립대학교·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광주전남연구원)
- 협약내용 : 지역별 남도학 프로그램 운영 및 실무협의회 참여

○ (교육운영) 남도학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020. 7. ~ 12.
- 교육장소 : 목포대학교평생교육원 외 3개소
- 교육방법 : 남도학 강의 및 현장탐방 병행 추진

03 추진 성과

- 도민들이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 마련 (140여명 참여)
-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담은 남도학 첫걸음 교재 개발로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 추진
- 도내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의 교육 참여 교육 접근성 강화(5개소)

04 참여자 소감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 담당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학습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특히 무료 교육과정인 경우 회차가 지날수록 출석률이 점차 줄어들기 마련인데, 본 과정의 학습자들은 꾸준히 높은 출석률을 보였고 이를 통해 배움에 대한 학습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추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문의도 많아서 이러한 지역학 강좌를 꾸준히, 다양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 학습자

전라남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학창시절에 들었던 강의보다 더 기억에 남았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을 듯하다. 특히 현장학습 때 암태도, 소작쟁의 그리고 서태석 님의 연대기 등에 대해서 알게 된 점과 팔금에 삼층석탑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남도학 첫걸음 교육을 준비해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비대면 교육(영상)



○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비대면 교육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장학습



○ 독립대학교 평생교육원



○ 광주전남연구원

3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9. ~ 12.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 **사업규모** :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
- **사업비** :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주요내용** : 40백만원(개소 당 5백만원 내외)

02 사업 내용

○ (사업공모) 일상에서 시민교육 운영 기관 선정

- 모집기간 : 2020. 8. 19. ~ 2020. 9. 8.
- 공모대상 : 평생교육 기관 등 시민교육 운영 희망 기관
- 선정규모 : 8개소
- 지원내용 :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컨설팅) 공모 선정 기관 대상 사업 컨설팅

- 일 시 : 2020. 9. 25. 14:00
- 장 소 :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참여대상 : 시민교육 공모 선정 기관 관계자 10명
- 주요내용 : 시민교육 이해 및 추진 방향, 해외사례 등

○ (교육운영)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명	프로그램명
목포YMCA 평생교육원	작(作)당하는 Citizen!
(주)해양관광자원연구소MTR	슬기로운 여수시민생활
문화예술협동조합 해마루	일상에서의 교육 『다문화를 말하다』
대한민국백백치공연단	충간소음 문제해결방안
에듀로인재개발연구소	우리 마을 소통하go 해결하go
좋은도서관모임	돌봄의 사회적경제와 인권감수성
보성군청년협의체	청춘 보성 필(必)살기 프로젝트
(사)청우인재육성회	지역변화참여 프로그램

03 추진 성과

- 층간소음 등 지역문제해결, 인권, 다문화 등 일상의 다양한 문제, 이슈 관련 생활밀착형 시민교육 추진 (도민 150명)
- 이론을 기반으로 한 토론, 체험 등을 통한 참여형, 실천형 교육 추진으로 민주주의실천 기술 습득 기회 마련

04 참여자 소감

에듀로인재개발원 / 기관 대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 마을 소통하go 해결하go’라는 주제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지역(광양, 화순, 나주 등)의 수강생들과 소통하며 각 지역의 현안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코로나19 시대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 보니,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서로 토의 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을 알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보성군청년협의체 / 학습자

보성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과 정해진 주제에 대한 토론이 아닌 교육 참여자들이 주제를 발굴해나가고 자기주도적으로 이끌어지는 토론, 그리고 이미지 피드백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며 지속적인 보성의 청사진과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문화예술협동조합 해마루



○ 문화예술협동조합 해마루



○ (주)해양관광자원연구소MTR



○ (주)해양관광자원연구소MTR



○ 대한민국백척치공연단



○ 좋은도서관모임



○ 청우인재개발원



○ 보성군청년협의회

4 생활 밀착 기술 교육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
- 사업규모 : 기관 3개소
- 사업예산 : 35백만원

02 사업 내용

- 중·장년층 자립적 경제활동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기술 교육 지원
- 생활밀착형 기술 교육을 통한 동아리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제공

03 추진 성과

- 나주협동조합 성인사람들 : 정리수납자격증(21명)
- 광양평생교육개발원 : 패널시어터(움직이는 그림 인형극) 자격증(20명)
- 보성 홍지중고등학교: 웃음치료사 과정(20명)



04 참여자 소감

광양평생교육개발원 / 학습자

움직이는 그림인형극 자격증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이야기 보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는 세상이 되다보니 나와 가족에게 답답한 집안 생활, 어른들도 집밖에 나가지 못함은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패널시어터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 앞에서 시연을 하고 또 했습니다. 교육으로 가족에게 웃음을 주고, 코로나19가 해제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까지도 행복과 웃음을 줄 수 있기를 기다려 봅니다.

나주성안사람들 / 학습자

훌륭한 배움의 기회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정리수납자격증을 갖게 되어 맘이 든든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소망합니다.



5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동아리 선정
- **사업규모** : 학습동아리 30개소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지원분야** : 재능기부형, 일자리연계형, 지역연구형

분야	내용	개소
재능기부형	학습을 통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사회 공헌이 가능한 동아리	27
일자리연계형	학습 성과를 활용하여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 가능한 동아리	2
지역연구형	지역사회 연구와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1

02 사업 내용

-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육성하여 도민의 자발적 학습공동체 형성 및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
-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소득창출, 재능기부, 지역연구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공헌이 가능한 동아리 중점 육성

03 추진 성과

- **학습동아리 운영성과** : 16개 시·군, 341명 참여 (단위 : 회)

구분	계	재능기부	일자리연계	지역연구
학습활동	326	285	25	16
사회환원	122	114	6	2

- (재능기부) 농촌 및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문화예술 공연, 공예품 기부 등 재능기부 활동
- (일자리연계) 초등학교 방과후교사, 청소년 학습 도우미 등 학습활동과 연계한 일자리 참여 및 재능기부 활동
- (지역연구) 나주 전통놀이 승람도, 유람도 연구를 통해 전통놀이를 계승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놀이 보급 및 교육 활동

○ 학습동아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추진실적 : 2회(권역별), 46명 참여
- 주요내용 :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 및 진흥원 사업운영지침 설명

구분	일시	장소	참여인원	비고
권역별	계		46명	2회
서부권	5. 27.(수) 14:00	전남개발빌딩	23명	
동부권	5. 28.(목) 14:00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3명	



04 참여자 소감

삼육이미용집수리봉사단 / 동아리 회원

우리 동아리는 관내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염색해드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훼손된 방충망과 간단한 집수리를 해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우울감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행복을 느끼고 미력이지만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맘스플라이 / 동아리 회원

- <교육받은 것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역아동보호시설 학생들에게 음악줄넘기를 가르쳐줌으로써 협동심과 사회성 향상 및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배울수록 즐거움이 더해져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음악줄넘기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방과후강사로 활동 할 수 있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올리올리우쿨렐레 / 동아리 회원

- 따분한 삶의 소소한 행복이다.
- 인생 2막의 원동력
- 행복한 에너지

곡성 브루어리동아리 / 동아리 회원

2020년 코로나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 축제 등을 참가해서 동아리회원들의 맥주맛도 평가 받고 또 지역 맥주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동아리 홍보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무산되었지만 회원들에게는 심화과정 학습으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수살림 / 동아리 회원

동아리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감사하며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마사지 강의는 재능기부로도 너무 좋지만 본인과 가족들에게도 심길 수 있어 가족 프로그램으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참여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나르는 그림책맘 / 동아리 회원

그림책을 사랑하는 맘들이 모여 좋은 그림책을 많이 알리기 위해 그림책 작가 공부와 다양한 그림책을 접하면서 아이들과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북아트, NIE, 전래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구입 등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개인이 아닌 동아리 활동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사랑(마루뜰) / 동아리 회원

3℃ 사랑은 우리 회원 중 한 분이 여름엔 3℃내리고 겨울엔 3℃올리는 따뜻한 재능기부 수업이 없을까 생각하다 만들어 낸 재능기부 동아리입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나주 전래놀이문화연구회 슬래 /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

“나주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본 곳도 있었어요. 문화재에 도착해서 전래 놀이 도전과제(미션) 할 때 더 더 재미있었어요. 나주유람도 놀이 도구를 갖고 싶어요. 학교에서 또 놀아보면 좋겠어요.”

물레야물레야 / 동아리 회원

“물레야 물레야” 동아리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농촌지역에 살면서도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재능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주로 장구와 북을 가지고 노래와 춤을 추는 기능을 익히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모여 연습도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원들이 탈퇴하는 등 약재가 있었지만 나머지 회원들이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도 만들었기에 앞으로 남은 분들이 더욱 힘을 모아 주도적으로 “물레야 물레야”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화답(꽃으로 답하다) / 동아리 회원

꽃을 통한 나눔을 경험하며 회원간에 코로나로 우울감과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극한직업군 소방관분들에게 꽃나눔을 하게 되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데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퇴직교사한글봉사단 / 동아리 회원

여수지역 퇴직교사들이 모여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자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은퇴하였지만 재능기부를 통해 배움이 계속되면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도깨비 / 동아리 회원

회원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과 재능기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배움+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하면서 그림책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었고, 회원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진 삼육이미옹집수리봉사단



강진 올리올리 우쿨렐레 동아리



곡성 브루어리 동아리



나주 맘스플라이



나주 전래놀이 문화연구회 '술래'



담양 물레야 물레야



목포 화답(꽃으로 답하다)



무안 꿈을 나르는 그림책 맘



순천 3도사랑



여수 퇴직교사 한글봉사단



여수 여수살림



영암 도깨비

05 참여 학습동아리

연번	지역	동아리명	분야	비고
계			30개소	
1	강진	삼육이미용집수리봉사단	집수리	
2	강진	올리올리 우쿨렐레 동아리	우쿨렐레	
3	곡성	곡성 브루어리 동아리	수제맥주	
4	광양	대한민국 병채로 통째로 공연단	웃음치료	
5	구례	구례 G Pop Band	음악	
6	구례	구례보존화연구회	야생화	
7	나주	맘스플라이	음악줄넘기	
8	나주	나주시 전래놀이 문화연구회 '솔레'	전래놀이	
9	담양	물레야 물레야	문화예술	
10	목포	화답(꽃으로 답하다)	꽃	
11	목포	소리나눔	통기타	
12	목포	흥부자	풍물/품바	
13	목포	우리민요사랑	민요	
14	무안	꿈을 나르는 그림책 맘	그림책	
15	무안	울랄라우쿨렐레	우쿨렐레	
16	순천	3도사랑	생활공예	
17	순천	차차차힐링봉사단	레크레이션	
18	순천	순천문화예술교육연구회	원예/봉사	
19	여수	퇴직교사 한글봉사단	성인문해	
20	여수	여수살림	치매예방	
21	영광	한지사사랑	한지공예	
22	영광	꽃한송이움트리(채색화)	민화	
23	영암	동그라미놀이봉사단	인지놀이	
24	영암	도깨비	그림책	
25	장성	FUN FUN한 영어회화	영어	
26	진도	집밥왕대왕	요리	
27	함평	모두리(모듬복을 두두리는 이들)	국악	
28	함평	함평노동요알리미 '덩더꿍'	노동요	
29	화순	화순쓰리고동아리	치매예방	
30	화순	오합지졸	통기타	

6 「인구를보면 미래가 보인다」 도민교육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7. ~ 11.
- 추진방법 : 시군과 연계한 공동교육(특별강의)
- 교육횟수 : 3회
- 교육대상 : 시민참여단, 초등학생, 공무원 등

02 사업 내용

-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도민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추진

03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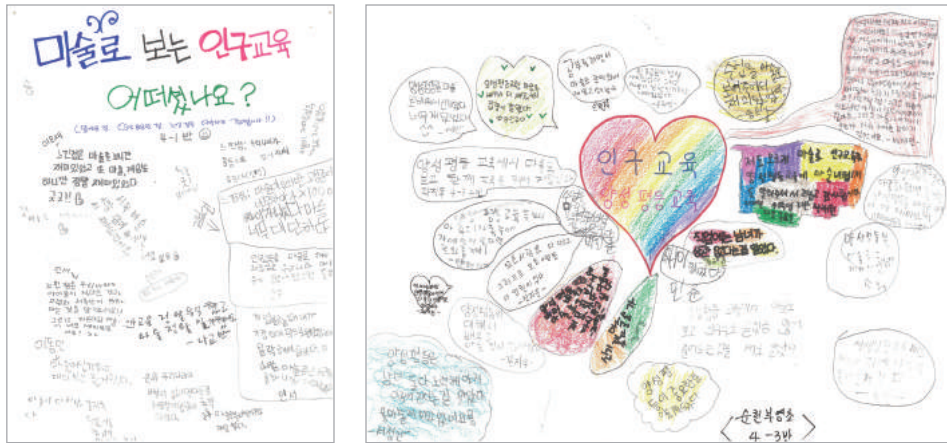
○ 인구교육 추진내역

일시	장소	주제	강연자	교육인원
계				157명
9.23.(수)	순천시민 협력센터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인구정책 방향	김수연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소)	25명
10.21.(수)	순천부영 초등학교	생애주기-가치관형성기 가족의 소중함	육명진 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박태영 마술사 (매직체플린 엔터테인먼트)	90명 -1회차:44명 -2회차:46명
11.12.(목)	구례군청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인구 정책 방향	장미영 교수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42명

- 순천시인구정책시민참여단, 초등학생, 공무원 등 소규모로 진행된 특강으로 교육 대상별 맞춤형 주제 선정 및 커리큘럼 구성. 참석자들의 교육 참여도와 만족도 제고
- 전라남도 인구정책 자료집 배부로 도내 주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일자리 등 관련 정책 정보 제공. 인구 관련 통계자료 및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제공으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구 정책 방향 공유
- 교육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재인식하고 지역의 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참석자들과 인구 문제 극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04 참여자 소감

순천부영초등학교 / 4학년



구례군청 / 교육 참여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인구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 방향을 공유, 업무적으로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적용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천시민참여단



순천부영초등학교



구례군청

Section
02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홍보 강화

1.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2. 동네방네 배움툼 운영
3.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4. 평생학습 소식지 웹진
5.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1

배움 행복마을학교 조성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계속지원 마을 확정
- 사업대상 : 시군(마을학교)
- 사업규모 : 7개소
- 사업비 : 70백만원(도비35, 시군비35) * 3년 계속 지원
- 사업내용 : 마을학교 지정,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02 사업 내용

○ 마을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도민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29개 프로그램(주민 학습동아리 9개), 도민 341명 참여
- 마을학교별 운영 내용

시군	마을학교명	운영내용
순천	불말개생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협의회 개최(3회) • 프로그램 운영(6개) : 마을정원, 생태학교협의회, 마을생태달력만들기 등 • 주민 동아리 2개 구성 : 생태그림, 정원가꾸기
광양	해봄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협의회 1회 개최 • 프로그램 2개 - 벽화그리기, 전통놀이 • 주민 동아리 2개 구성 - 퓨전요리, 정리수납
	성호2-1차 아파트 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5개 : 천연비누, 가족공예, 수학 등 • 나무미장터 운영 : 주민강사 무료체험 운영
나주	명하쭉빛행복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협의회 3회 개최 • 프로그램 4개 : 마을텃밭정원, 천연염색, 한국화(2) • 주민 동아리 2개 구성 : 무안염색회, 시니어클럽
	회탑마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협의회 2회 개최 • 프로그램 3개 : 원예치료, 장구, 요가 • 주민 동아리 3개 구성

03 추진 성과

- 마을학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 기회 증대 및 학습 나눔활동 촉진
 - (해봄마을학교) 퓨전요리교육 → 경로당 어르신 간식제공
 - (성호1차) 학습 나눔미장터 운영 → 주민 대상 무료 강의 운영
-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 및 활력 증진
 - (화답마을학교) 장구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소공연 운영
 - (해봄마을학교) 전통놀이 동아리 중심 '창덕전통놀이한마당' 운영
- 마을 자산 활용 등 마을학교 자생력 강화 노력 지속
 - (해봄마을학교) 광양시 공동육아 나눔터 시설 유치
 - (불말계생태학교) 마을 방문객 대상 체험 등 특화 메뉴 상품화

04 참여자 소감

해봄마을학교

퓨전요리 동아리 활동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만드는 과정과 완성된 음식의 모양, 맛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다. 아파트 경로당을 대여하여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장소의 문제, 주방도구의 준비 문제가 해결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만든 음식을 오후 경로당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매회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봄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초등 돌봄 기구인 용강리 공동 육아나눔터를 유치하여 운영, 2021년부터 맞벌이 가정과 유아를 둔 가정에 돌봄센터로서 해봄과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화답마을학교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주민들의 삶을 즐거운 장구로 인하여 즐거운 여가를 즐기게 하였다. 마을협회의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복학습 매니저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십자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주민들의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꼭 지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다. 배움해봄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의 연결성을 갖고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전문적인 강사진의 긍정적인 활력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활력 있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 광양 해봄마을학교



○ 광양 성호2-1차 아파트 문화센터



○ 나주 명하쫄빛행복마을



○ 나주 화담마을학교

2 동네방네 배움틈 운영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추진방법 : 직접운영
- 사업규모 : 59개소
- 사업예산 : 42백만원
- 주요내용 : 일상학습 지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동네 학습공간 조성
 - 생활권 내 유휴공간(공공시설, 카페, 작은도서관 등)을 평생학습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여 학습공간 조성을 통한 근거리 평생학습 기반 마련

02 사업 내용

-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을 발굴하여 평생학습활동 공간으로 지정·활용
 - (공간나눔) 생활권 내 유휴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학습공간으로 활용
 - (학습나눔) 공유공간 활용한 소그룹 평생학습 제공 및 소외계층 방문 실천학습 운영

03 추진성과(사업결과)

- 도민의 학습공간 ‘배움틈’으로 지정, 평생학습 프로그램 ‘틈새학습’ 운영
 - 배움틈 : 동네 학습공간 조성 59개소 / 작은도서관, 카페, 공방 등
 - 틈새학습 :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649명 / 나눔활동 24개소



04 참여자 소감

행복아트 / 학습자

생활권내에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으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일일강좌를 통해 만든 마스크를 소외기관에 나눔활동을 진행하여 연말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미빵빵홈베이킹 / 학습자

제빵에 관심이 있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며, 코로나로 얼어붙은 연말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공예공방 / 공간대표

공예공방을 운영하며 동네 가까운 곳에서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고, 공간대표로서 지역주민들과 재능과 공간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3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01 사업 개요

- **교육기간** : 2020. 8. 26.(수) / 8. 27.(목)
- **교육인원** : 총 100명
- **교육방법** : 비대면(쌍방향 실시간) 교육
- **참여대상** : 도내 평생학습 활동 강사 및 관계자
- **주요내용** : 평생교육 트렌드 및 학습자 공감 기법 제공 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변화하는 평생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02 사업 내용

- 평생교육강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있는 평생교육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교육

03 추진 성과

- **광양 문화예술 활동 강사**
 - 비대면 온라인 교육접근방식과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롭고 특별한 강의로 즐거웠습니다.
- **진도 문해 활동 강사**
 - 학습자를 공감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나에게 충실한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 **나주 인문학 활동 강사**
 - 참여형 강의로 강사의 독특한 강의방식이 좋았으며 현장에 응용 가능하여 다음에도 관련 부분의 교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4

평생학습 소식지 웹진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주요내용 : 평생교육 관련 이슈, 진흥원 소식 등
- 발행횟수 : 연 2회
- 제공대상 : 도민, 시군 및 타 시도 평생교육 관계자 등
- 웹진 주소 : <https://www.jntle.kr/main/uWebzine>

02 사업 내용

-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홍보와 다양한 평생교육 소식을 온라인으로 알려 평생학습 정보제공 및 참여 기회 확대
- 웹진 구성 : 진흥원 추진사업, 현장 인터뷰, 전문가 칼럼, 이슈포커스 등

03 추진 성과





전문가칼럼

모두가 함께 하는 평생교육을 향하여

-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평생교육을 위한 과제 -

고영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구개발특임센터장)



어느 지역,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COVID-19)의 창궐로 인한 암울한 한 해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평생교육 역시 코로나19의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¹⁾ 응답자 전체의 3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생교육 참여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였다. 특히 평생교육에 참여 예정자 또는 실제 참여 중이던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75% 즉 네 명 중 세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평생교육의 취소 또는 중단 경험을 하였다.

코로나19가 평생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방식은 다양하다. 특히 공공영역의 평생교육은 국가적으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히 멈추다시피 하였다. 일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일부는 이조차 포기하였다.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학습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 유도를 더 강조한 때문이다. 서로 만나지 않고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

1) 고영상·홍준희(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평생교육에 미친 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슈페이퍼 2020-5.

고,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하느니 차라리 상황이 진정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한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더라도 현장에는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도 부족할뿐더러, 교수자나 학습자 어느 쪽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문제도 있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일 년 내내 지속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감염병 대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이르면 2021년 4월경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 하고, 하반기부터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은 반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기 시작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찾아올 삶의 정상성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주었고, 지난 1년간 우리의 생활 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위기 순간에 나타난 각국 시민사회의 저력은 시민의 사회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방역 모형은 시민참여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하고 있고, 방역·사회안정·경제안정의 선순환 고리를 챙긴 대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시민참여 기반 방역을 실시한 국가에서 사회적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불충분한 시민참여와 방종 수준의 개인 자유가 난무한 국가에서는 방역도, 사회적 안정도, 경제적 가치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음을 목격하였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는 시민참여의 확대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이미 오래된 위기로서 기후환경변화 분야에서 더욱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보통신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디지털 생활양식이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전통시장 장보기조차 온라인 주문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수많은 활동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대화

와 토론, 공동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회활동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측불가능한 사회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회 환경에서 따라가기 식의 적응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능동적, 창의적, 주체적 생활 양식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0여 년에 걸쳐 심화된 지구촌의 분업 사슬이 한순간에 끊어졌고, 새로운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넘나들기 어렵게 되자, 물류비용보다는 기술력, 국경 넘나들기의 용이함(국제관계), 소비시장 규모 등이 더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생산체계가 디지털변혁과 맞물려 이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업과 공장은 이러한 조건들을 토대로 재배치, 재구성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환경이 뒤바뀌고 있고, 그만큼 개인과 사회의 생산 역량에서도 변화가 요청된다. 학교에서 한 때 배운 것으로 평생의 직업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고, 전통적 학력사회도 그 끝을 바라보고 있다. 생활 속에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삶의 양식은 과거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정상성(뉴 노멀, new normal)을 향하여 진화할 것이라는 데에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 가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삶의 양식의 변화는 특히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평생교육이 삶의 필요에 대응하여 개인과 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실천 활동이라고 할 경우, 평생교육의 재구성은 삶의 양식 변화에 따른 숙명이기도 하다. 각자의 삶의 행태와 사회 구성이 바뀌는 데 특정한 평생교육 접근 방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삶의 변화 양상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의 접근방식은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평생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분절화를 지양하여야 한다. 각자는 독립적 개체로서 개성을 지니고,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격을 지니고, 가족구성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가치의 생산자로서 삶을 영위한다. 이들 삶 중 어느 하나라도 분리되거나 균형을 잃을 경우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평생교육은 총체로서 삶의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평생교육이 분절되고 심지어 배타적으로 다루어지는 흐름이 생겼다. 시민교육과 문해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이 구분되고,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과 노동 시장 참여를 위한 교육이 섞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의 소재와 주제에서 특정한 면을 강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르치려는 자의 입장일 뿐이다. 학습자에게 평생학습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노력으로서 하나로 수렴된다. 그러므로 삶의 조화라는 총체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보고 이에 적합한 평생교육의 양식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사회의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둘째,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수월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향하려면 학습자의 현재 역량과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 각자의 평생교육 이력을 파악하고 그 역량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역량에 맞추어 자신이 참여할만한 교육기회 즉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교수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찾고,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학습이력정보,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역량 정보, 교육과정 내용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정보, 강사의 역량에 관한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행 <평생교육법>이 언급하고 있는 “평생교육종합정보망”의 관점에서 학습계좌제, 강사정보은행제, 교육기관정보공시제, 평생교육인증제 등의 구축하고 연동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을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제도의 형성과 운영은 국가의 ‘통치’의 관점을 극복하고, 국가와 해당 부문 관계 집단에 의한 ‘협치’의 관점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지자 사회적 실패를 넓혀 사회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강조해온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그런데 현재의 평생교육 거버넌스는 두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공공영역에 집중된 거버넌스 체제로서 성장해 왔다는 점이다. 국가-시도-시군구가 협력한다는 점은 명확해졌지만, 민간 참여자는 체제 구성에서 깊이 고려되지 않는다. 한편, 거버넌스 각 참여주체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거버넌스 참여자는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 실시자로서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평생교육 후원자로서 각종 기관과 단체가 있으며, 각 참여주체의 행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진흥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 평생교육 정보체계를 형성하고 연동할 때 평생교육 거버넌스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 평생교육을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헌법은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참여를 국민의 권리로 보고 정하고 있고, 교육참여권을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해석한다.(헌재 1992.11.12., 89헌마88, 4. 739)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서 헌법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따로 명시할 뿐 아니라, 관련 제도의 운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평생교육의 현실은 특이하게도 소위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운다. 평생교육의 가치가 학습자의 개별적 이익 즉 사익(私益)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일종의 ‘시혜’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국가가 평생교육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난 반세기 한국의 평생교육 재정은 교육재정의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고, 평생교육 재정을 다루는 법률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제라도 평생교육을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평생교육재정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한 각종 평생교육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위기를 가져왔고, 삶의 양식 속 깊은 곳까지 변화를 자극하였다. 평생교육 역시 이 위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삶은 이제까지와는 새로운 양식을 요청하고 있고, 평생교육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가 필요하다.



이슈포커스

코로나와 비대면 평생교육

- 비대면, 교육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다 -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늘상 쓰는 ‘안녕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안(安, 편안 안), 녕(寧, 편안할 녕)으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란 뜻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굶거나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에 간밤에 아무 일 없이 평안했는지, 잘 살아서 하루를 버텼는지 묻던 말이 지금의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우리는 매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을 접하며 가슴을 졸이기도,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코로나 기사가 쏟아지고, 핸드폰에서는 연일 재난문자 울리는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는 안녕하니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은 ‘코로나가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앞당겼다’고들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방식들이 우리 생활에 더 빠르게 도입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변화됐을 일

상이 코로나로 인해 한 번에 몰려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할까요? 새로운 일상을 향한 배움의 실천이자,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나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며 이슈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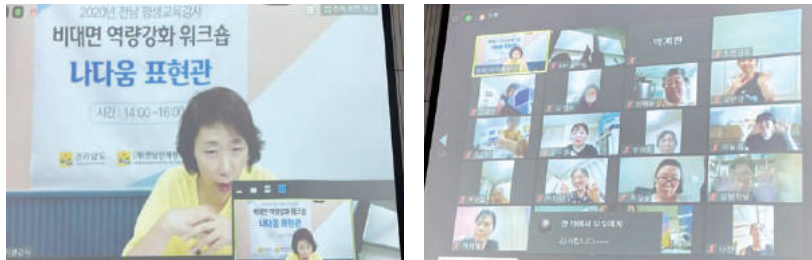
‘줌하다(Zoom)’라는 동사는 코로나19 이후 태어났다.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된 흐름을 꼽으라면 단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영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줌(Zoom)의 하루 이용 고객 수가 3억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줌(Zoom)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장소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전세계 누구와도 화상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떨어진 사회적 거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준 덕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한 2020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Top10에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자할게” 하는 표현이 “카톡할게”로 대체되었듯, 줌(Zoom)은 어느새 회사 이름을 넘어서서 영상회의를 의미하는 하나의 동사가 되었습니다.

줌(Zoom)과 같은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며 교육 환경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대면 위주로 진행되었던 교육 방식이 비대면으로 확장되었고, 학교나 강의실과 같이 지정된 공간만이 아닌 접속이 가능한 장소가 교실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또한 이 변화의 흐름에 합류하여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 곳들이 속속 눈에 띄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소식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지난 8월 진흥원에서는 도내 평생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다움 표현관”을 주제로 평생교육 트렌드 및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위한 강점 찾기로 진행되었는데요. 도내 16개 시·군 100명의 평생교육 강사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관의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기에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강사님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평생교육 트렌드 및 학습자 공감 기법 제공 등 심리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등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추진된 비대면 교육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을 누가 막으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신 덕분에 교육을 진행해주신 강사님과 참여해주신 학습자분들이 쌍방향 실시간으로 묻고 답하며 비대면의 제약과 소통의 제한을 극복하였고, 응답자분들의 92% 분들께서 이번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진흥원에서 추진한 공모 사업 중 비대면으로 추진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남도학 첫걸음'과 에듀로인재개발연구소의 '일상에서의 시민교육'인데요. 자세한 추진 내역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 남도학 첫걸음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진흥원은 올해 3월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및 연구기관 5개소와 남도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관 5개소 중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도내 중부권역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남도학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추진하였는데요. 새천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남인의 자긍심 고취와 도민 의식 함양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총 10강의 원격수업과 1회의 현장학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2시간씩 동신대학교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활용한 e-러닝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도의 문화, 멋과 맛, 나주지역의 고대문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당초 모집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고 총 46명의 도민 학습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관련 문화, 인문,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00% 전원 수료라는 성과를 거두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일상에서의 시민 교육 에듀로인재개발연구소

진흥원에서는 도민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돕기 위해 일상에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정된 도내 8개 기관 중 광양에 위치한 에듀로인재개발원은 **우리 마을 소통하go 해결하go(마을시민 체인지메이커 만들기)**를 주제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전라남도 거주 지역활동가, 평생교육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줌(Zoom)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고려하여 1차시에 줌(Zoom) 기능 안내 및 수업 규칙을 정해 온라인 학습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 내가 속한 공동체 이야기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며 열띤 수업을 이어왔는데요. 총 8차시 과정을 토대로 마지막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해결책 제시 등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해결책 공유방법까지 모색하며 온라인을 넘어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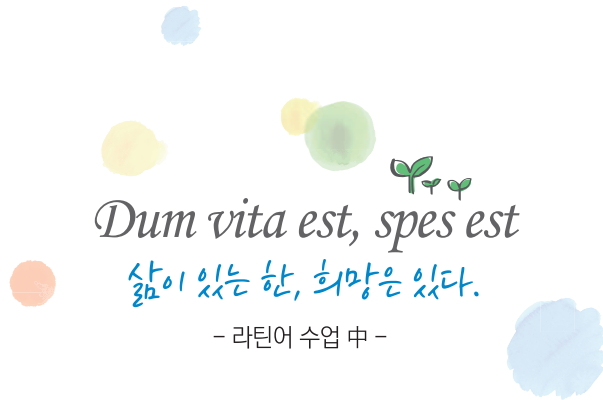
우리 마을 소통하go 해결하go(마을시민 체인지메이커 만들기) 비대면 교육
[에듀로인재개발연구소]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덮친지 1년이 지나고 어느덧 2020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극복해냈던 이전의 전염병들과 달리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2020년은 인류 역사상 전후무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피어오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떠올려봅니다. 시민정신, 인류애와 같은 휴머니즘과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떨어진 사회적 거리에도 평생학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내 삶을 바꾸는 평생학습!

여러분의 평생학습을 응원하며 책 <라틴어 수업>의 문구를 인용하여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웹진 주소 : <https://www.jntle.kr/main/uWebzine>

5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0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8. ~ 11.
- 공모주제 : “평생학습으로 이겨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 참여대상 : 전남도민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학습자, 강사, 기관담당자 등
- 참가기준 : 수기 1인 1작품
- 시상내역 : 총 10명

02 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을 통하여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 및 평생학습 문화 성과 확산의 기반 마련

03 추진성과(사업결과)

○ 수기공모전 당선작

순위	수상부분	성명	작품명
1	최우수상	주서영	틈새학습이 메워준 간격
2	우수상	김현송	“물레야 물레야”
3		조민경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4	장려상	김은진	코로나블루를 이기는 방법!
5		김수연	세상과의 연결고리, 직업상담사!
6		정재완	나의 평생학습과 코로나의 역설
7		정삼수	코로나에도 멈출 수 없는 봉사활동의 기쁨
8		주소영	“평생학습 강좌 개발은 즐거워!”
9		하예송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10		김형필	다른 삶을 위한 포기.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만족





틈새학습이 메워준 간격

주 서 영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 무관한 카페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커피’는 전문인의 영역이 아니어서,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할 거냐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큰 카페의 점장이 되고서야 인정을 받았다. 꼬박 10년을 채워 일하고 나서, 동생과 함께 고향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다.

사장이 되면 다 잘 될 것만 같았다. 나는 오래 카페 일을 했고, 커피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고향에서 시작한 카페 일은 녹록지 않았다. 이미 기존에 자리 잡은 카페들이 있었고, 내 실력이나 커피맛, 10년 경력의 바리스타가 아닌 우리 아빠의 ‘딸’로만 평가되었다. 내가 배운 좋은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 지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나는 왜 이곳에 카페를 차렸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지? 하는 고민이 거듭되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오시는 손님들도 반갑지 않고 모두 내가 만드는 커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수도권 외곽의 확산 추세보다 전라남도 지역은 잠잠한 편이었지만 언제 지역감염이 퍼질지 몰라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마음마저 심란해 이대로라면 카페를 접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친구를 통해 2020 동네방네 배움틈-틈새학습 모집 공고를 알게 되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데다 지역주민들에게 유휴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취지가 좋았다. 처음 우리 지역에 매장을 열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 떠올랐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다함이라 매장 이름을 지었던 때. 틈새학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면 음료를 판매하는 곳만이 아닌 교육을 겸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틈새학습과 관련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어떻게 하면 학습 내용에 더 흥미를 느끼고 관심 두게 할 수 있을까?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하며 하지 않았던 고민이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배움틈-틈새학습에 선정된 후, 학습 구성원 모집은 매장 SNS와 매장 홍보를 통해서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이 문의를 해주셔서 놀랍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분위기나 오픈 초,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던 때와는 다른 반응에 새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힘과 잘 구성된 교육과정의 힘이란 이런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첫 수업 날, 나는 26장에 달하는 학습물을 준비했다. 의욕이 넘친 탓이었다. 간단한 테스트도 준비했었는데, 결국엔 학습물을 읽고 커피에 관해 궁금하셨던 점, 앞으로의 수업 진행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 서로 친해지는 데에 더 시간을 썼다. 틈새학습 구성원들과의 호칭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었다. 정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네 분이나 계셨고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 등,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탓에 우리 매장에 와주시는 손님들의 나이와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었다.

다양한 연령분포로 서로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기우인 듯, ‘커피’라는 공통 관심사로 매주 만남을 갖다 보니 선생님들과 금방 친해졌다. 수업시간이 끝나도 각자 한 주를 보낸 이야기, 취미 생활, 최근에 가본 좋은 카페 등을 이야기하며 마감 시간까지 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신기했다. 카페 일을 하며 손님과 이렇게 가까워져 본 적도, 커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속마음까지 나누게 된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카페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한 주 한 주, 수업시간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지를 생각하는 내가 있었다.

그러다 우리 지역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 광주지역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전남으로까지 퍼져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격상되고, 그 때문에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4주나 미뤄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매장매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했다. 가장 붐벼야 할 점심시간에 비어있는 테이블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매일의 매출을 걱정해야만 했는데, 감사하게도 틈새학습을 함께하는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다.

선생님 한 분께서는 초등학교 행사에 쓰일 음료와 디저트 60인분을 일부러 우리 매장에 주문해주기도 하시고, 다른 선생님께서는 점심시간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해주셨다. 지나가다 들렀다며 음료나 디저트를 사서 가져나, 가족들과 식사 후 함평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집이라 소개하며 와주기도 하셨다. 따로 힘내라 말씀해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할 때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매장을 걱정해주시고 나와 내 동생을 염려해주신다는 것을 말이다. 덕분에 코로나로 인한 침체 속에서도 무뎠하게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

‘틈새’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1. 떨어져 난 틈의 사이, 2. 모여 있는 사람의 속, 3. 어떤 행동을 할 만한 기회’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다. 이를 곱씹어보면 선생님들 틈에서 함께 학습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히려 내 마음속에 떨어져 있던 ‘자격지심’이란 큰 틈이 메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틈새학습을 통해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코로나로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걱정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아마 카페 사장과 자주 오시는 손님, 혹은 함께 8주의 학습을 한 겨우 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로 그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소중함을 느끼며, 오늘 들려온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소식에 코로나가 더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본다.



“물레야 물레야”

김 현 송

막순 : 예~~~ 여보시오~~ 여기좀 한번 봐주세요~
 동네아집1 : 아, 어찌그려~~
 막순 : 사진 한번 박을라 그런게 쪼개 좀 봐주세요.
 동네아집2 : 날도 어두운디 선상님 얼릉들어가시오, 우털은 찬차니
 갈랑게로~~



날이 벌써부터 선선해지고 밤이되니, 귀뚜라미가 귀뿔, 귀뿔 울어대고, 밤 새소리도 뽀로롱, 뽀로롱 거린다. 삼다리에 사는 형님들과, 금성면에 사는 민자동생이 가로등을 지나 킁킁한 곳으로 들어가기전, 나도 모르게 불러세워 영상에 담아봤다. 뿔을 얼마나 잘해준것도 없는데, 먼길 마다 앓고 밤마실 나와, 놀다 가시는길에, 콧노래를 부르고 가는 뒷모습이 정겨워보여, 나도 모르게 찡한 뿔인가 밀려오고, 저 장면을 놓치기 싫어 부리나케 찍었다.

농촌에 사니 다들 새벽같이 일어나, 딸기농사다 뭐다 허리한번 못피고 일만하다 식구들 저녁진지 얼릉 차려주고, 장구 선생 만난다고 냅다 달려오셔서, 장구좀치고 노래 좀 하다 가시는 길이다.

장구치는 솜씨야 그저그렇지만, 그래도 끼와 흥은 남보다 못하진 않는다. 노래라고 해도, 요즘 노래 못부르고 가사도 다 모르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목청을 올린다.

옛날 우리네 어머님들이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물레를 돌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표현하고 그러셨다든디 역시, 우린 같은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았던 생각이 확실히 든다.

그런데 오늘은 양순 형님이 안오셨다. 널모래새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코로나때시 어쩔까 싶어 함부로 못다니신다한다. 저번주는 남순언니가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셔서 골골 하신디, 코로나가 무섭다 하여 빠지셨다. 이래저래 빠지니, 형님들의 수다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코로나 이야기는 이제 다 박사급이다. 어디서 환자가 나왔는데 그리하면 안되고, 어느놈이 코로나를 옮겨서 이지경이 되었네, 언제 끝날까 싶네 등의 수다가 장구친 시간 보다 더 많을라 한다. 사실은, 하루종일 일만하다 녹초가 되어서도, 땀을 씻고 장구치러 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못 할까 걱정이 앞서는가 보다.

장구 선생인 나도, 속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가르쳐준 노래를 잊어먹고 와서가 아니고, 얼굴을 자주

못보니 아무래도 흥이 식어가는가 싶다. 남들처럼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진흥원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문화재단도 들어가보고 여기저기 ‘코로나’ 단어가 들어간, 공지사항을 눈여겨 본다. 갑자기 모르던 단어들도 엄청나다. 언택트 시대니, 팬데믹이니, 확진자니 등의 단어들을 보며,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시대의 전환기에 있던 생각이 든다. 장시간 흘러가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나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돌파구를 나름대로 찾아야 겠단 생각을 해본다.

일단 코로나로부터 나와 주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마스크를 두장을 한다. 천마스크는 세탁하여 청결하게 쓸수 있으니 안쪽에 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그위에 덧착용한다. 이제는 형님들도 마스크는 생활화 되셔서, 꼭 착용을 하시고 오신다. 또한 예전에는 열명이 한번에 수업을 했으면, 지금은 나누어서 수업에 참여를 한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어 편이 아닌 편으로 갈라졌지만, 공간이 넓어지니 편안해 하신다. 체온계도 이젠 본인들이 직접 체크하신다.

‘줌’은 나에게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 두번의 워크샵에 참여해 보니 나름 재미도 있었고, 호기심도 생기어 호스트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 형님들도 벌써 누가 말하는걸 들었는지 비대면 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구사 하신다. 비대면 수업을 상상해보니 그림이 그려진다. 처음에는 마이크도 못키고 그러시겠지. 하지만 우리는 장구만 배우는게 아니라, 동아리를 통하여 누구네집은 어떻다, 누가 어찌드란다 등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이기에, 이러한 새로운 문화도 같이 도전 해보는것도 의의가 깊을 것 같다.

또한 이 기회에 ‘학습동아리의 의미’, 다시 정리를 해보고도 싶다. 동아리의 기능이 꼭, 기능을 익히는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사는, 배려하는 공동체의 의미로 정의를 하면, 비대면의 만남에서 오히려 더욱 새로운 공동체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을 못만나니 오히려 더 절실한 그리움이랄까? 실제로 서로 만나면서 티격태격 하시던 분들이 요즘은 자주 못 만나니 아쉬운가 보다. 더 살뜰이 챙겨주는 걸 보았다. 우리는 사람이든, 음식이든, 물건이든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았는가도 싶다. 바로 엇그제 까지도 그때가 행복했는지 모르고 살았기에, 지금은 오히려 더 숙연해지고, 빈곤함속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것 같다.

어차피 문화예술은 예로부터 배고파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 않는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면, 나도 진정한 예술가 소리를 들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나는 형님들께 안부를 물어본다.

막순 : 형님, 장구에 곰팡이 피것유~~

동네아집3 : 금계 말여, 어째야 스까잉~~~ 통 못가서 노래도 다 잊어부렀어.

막순 : 뭘 어찌유, 지가 비설거지 다 해놨응게, 아무 때구 와서 한번 두들다 가유~~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조민경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12월,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반을 기다려왔던 아기를 만났던 순간, 이제 내가 엄마가 된건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라서 다 아는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걸 아는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는법부터 아기가 언제 배가 고픈지, 왜 우는지에 대해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되고나서 저의 배움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위해 해주고 싶은게 너무 많은 제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100일도 채 되기 전, 코로나가 나타나 이 세상을 멈춰버렸습니다. 아기와 함께 다니려고 기대했던 문화센터도, 육아강좌도 모두 잠정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나서는 외출도 꺼려질만큼 바깥 세상에 무서워졌습니다. 아기를 위해,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기대했던 제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듯 하였습니다.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아이와 집에만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블루'가 제 애기인 것 같아 남편에게 제 고민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안이 아닌 집에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도 필요한 것을 인터넷을 찾아 배워보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육아법, 아이 발달에 맞는 놀이법 등 저는 왜 문화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코로나19로 학생들도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기사를 수없이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배울 수 있을거란 생각은 왜 못했는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언택트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배워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해 보자!” 문화센터의 수업, 강좌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인터넷, 유튜브 강의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육아강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는 시간을 틈타 강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메모도 하고, 추천해주는 육아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아기를 키우면서 긴가민가했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나만 이렇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취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홈트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보며 남편과 같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세도 몇 번 반복하니 이젠 제법 익숙해졌고, 육아로 쌓인 육체 피로를 운동으로 해소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마사지도 배워 아기와 교감을 늘리며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 보았습니다.

배움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만족와 새로운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온라인 학습은 인문교양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보게된 법륜 스님 강좌부터 '세바시'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15분간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들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강좌를 보며 아기가 자는 틈틈이 인문학에 대한 감성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배움을 통해 활력을 갖게 되자 아이도 그것을 알았는지 더 예쁘게 웃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게되어 한동안 멈춰있었던 제 세상이 다시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이 멀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배운 운동도, 인문교양 강좌도, 아기가 뱃속에 있었을 때 했던 태교도 모두 평생교육이었습니다. 태교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배우는 모든것이 평생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야 와닿습니다.

처음 수기 공모전을 보았을 때 집안에만 있었던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모든게 평생교육이라는 확신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누구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배우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쉽게 밖을 나가는 것도, 배우고 싶은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어려운 요즘 스스로 관심있고 흥미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더 크면 제가 배운 것 중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깊이 공부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아기에게 시원한 바람을, 따스한 햇살을 마음껏 쬐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기가 마스크 없이 맘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세상,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글을 마칩니다. 평생교육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려상

코로나블루를 이기는 방법!

김 은 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가족과 이웃을 만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를 상상해 본적이 있는가?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생각조차도 해 본적이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잠깐 멈추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던 일상은 아직도 기약 없이 흘러가고 있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부하던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당하며 그보다 더 작은 존재감조차도 느껴지지 않는다.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나는 2020년 2월 초, 마스크를 쓰신 어머님들께 코로나19로 인해 며칠 쉬었다 다시 수업하러 오겠노라 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그 며칠은 몇 달이 되고 말았다. 지난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한글선생만 기다리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산등성이를 몇 개씩 넘어 수업을 하러 다닐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님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니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우리 군에서는 약 40여명의 성인문해교육 강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나름 이 문해 교육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라 수업에 대한 금단 효과는 모두를 공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군청에서 기획했던 민화그리기 사업을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고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분들이 수업을 받는 학습자가 되어 함께 모이게 되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은 비 대면으로 이루어져야했고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려면 밴드에 올라온 동영상을 들어야하고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할 줄 알아야 했는데, 처음엔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라 과연 이 민화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문해 교육의 부재가 만든 일상의 공허함은 어떤 걸림돌도 막을 수 없는 듯 너무나도 수업에 잘 참여하셨다.

나 또한 그림에 소질도 없거니와 익숙지 않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과연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할 지에 대한 막연함과 걱정이 있었는데 의외로 혼자서 수업을 들으며 집중도 잘 되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보니 온라인 수업이 나름 장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수업을 며칠 늦게 듣는다고 작품을 못 그렸다고 혼수 두는 이가 없으니 게으름을 부리거나 살짝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민화를 그리고 수업이 올라온 동영상 밑에 댓글로 본인의 작품을 숙제처럼 올리면서 강사님의 조언도 듣고 다른 선생님들의 그림도 감상하며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힘이 되기도 하였다.

뉴스에 보면 학교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학력격차가 많이 나서 중간층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나는 이 민화수업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느낌이 학생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문해 수업을 받으실 때 그러했듯이 수업의 집중도가 어린 학생들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것과 새로운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강의만 남겨놓은 이 시점에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다 즐거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붓을 잡는 손이 떨리고 색이 마음대로 칠해지지 않아 만족할 수 없었던 순간보다 그림이 완성되고 바라보며 아쉬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는 그 순간이 코로나블루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군청에서 문해 교육이 너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아 고민을 하다 학습꾸러미를 만들어 수업을 재개하게 되어 어머님들께 전달하고 왔다. 그동안 전화로 안부만 여쭙다 완벽하진 않지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민화수업도 받았으니 내년엔 어머님들께 한글뿐만 아니라 민화도 가르쳐 드리면서 그림과 관련 된 이야기도 나누고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볼 것을 상상해 본다.





장려상

세상과의 연결고리, 직업상담사!

김수연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 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저에게 ‘구직자’ 및 ‘실업자’라는 용어는 무척 익숙했습니다. 저 또한 언제든지 근로자에서 실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9년 만에 저는 2020년 4월, 처음으로 장기 실업자가 됐습니다.

근로를 하지 않고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가 된 순간 이 세상에서 버려진 쓸모없는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바로 구인 시장을 살펴보았지만 제 4차 혁명이 도래한 현 시대에 발을 맞춰서 동행하기에 저의 역량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구직 시장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과연 재취업이 가능할까?’ 등. 이러한 질문을 되새기며 저를 돌아봤을 때 희망 직종 및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희망 직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할까? 궁금증을 갖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직업상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포 권내에 직업상담사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전남인력개발원이었습니다. 더불어 ‘과정평가형’ 과정이었습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앞날의 길을 밝혀 주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근로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에 과정평가형 교육기간 5개월은 저에게 엄청나게 긴 터널을 지나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과거 근로 당시 발급받은 국비 지원 전용 계좌제 카드 ‘내일배움카드 (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일일 6시간 교육시간과 총 100일의 교육일정으로 구성된 과정평가형 과정이다 보니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등 쉽지는 않은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저의 역량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육과정이 6~70% 진행되는 시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 구직자 채용기관이 대폭 줄었다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재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연일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저 스스로를 도태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시국을 잘 견뎌내고 버텨보자는 신념으로 참여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20명 훈련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교육기관에서도 입·퇴실 시 발열체크를 통해서 예방에 힘썼습니다. 교육생 퇴실 후 매일 소독을 진행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에서 교육과정에 참여해서인지 2020년 09월 04일까지 무탈하게 훈련을 수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NCS를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만발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교육과정 중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 NCS를 기반으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드디어 희망하는 기관을 찾아 구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 있는 구직시장을 과감하게 돌파하여 국가 교육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상황에 본 교육과정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19로 인해 막혀 있던 구직시장이 더욱 힘들게 다가왔을 겁니다.

직업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들은 재취업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평생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알게 된 적성에 맞는 직업 찾기, 재직 후 사후관리,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전직 및 은퇴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 및 삶은 전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종식될 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기’와 같은 흔한 바이러스 질병으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의학계에서는 예견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거나 바꾸려는 노력보다 기지를 발휘하여 현실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은 필수요소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국가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 국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려상

나의 평생학습과 코로나의 역설

정 재 완

퇴직한 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다.

인생 제2막을 나름대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퇴직 2년 전부터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야간 강좌를 듣기고 하고 불교영상대학을 다니면서 봉사하는 삶을 꿈꾸기도 했다. 또한 농부의 삶을 염두해 두고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에 텃밭을 마련하여 틈나는 대로 흙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퇴직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내와 함께 해외배낭 여행이었다. 언어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영어회화라도 익혀보려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영어회화반에 들어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끈기가 부족한 탓인지, 학교 다닐 때 배운 문법 중심의 영어가 문제였는지 발음 교정이 쉽지 않아 주변에 민폐까지 끼치는 상황이 되었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회의감이 들어 중도 포기하고 외국어 번역 어플에 의지한 채 여행을 떠났다.

힘든 여정이긴 했지만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자연에 대한 외경감, 인간에 대한 한없는 연민 등은 오랫동안 내 마음깊이 자리 잡아 인생 2막의 좋은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때 인내심을 가지고 영어회화를 좀 더 익혔더라면 보다 운기 있는 여행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오랫동안 남아 그 뒤로는 평생학습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강하였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가 아닌가 싶다.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좋아 하는 단어 역시 학생이라는 단어이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에 다니면서 어렵פות이 농업에 대한 안목도 갖게 되었다. 특히 작년에 공부한 도시농업과정은 텃밭농사에 관심을 갖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쌈채소 한 잎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돌보듯 농부의 땀과 정성의 결실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에도 참여하여 동영상 제작도 해보고 블로그도 만들어 보면서 작은 보람을 느껴보기도 했고 문화원에서 개설한 품물 반에서 품물을 익히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매달 한차례 있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작년부터는 동네강좌로 개설된 논어 반에 등록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고전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있다.

한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해석에 의존하는 수준이지만 자칫 이웃과 소외되기 쉬운 아파트 생활에서 서로 소통하며 많은 활력을 얻는 것 같아 은혜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 우리 아파트에도 많은 편의 시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중단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도서관 사서직 역시 비게 되어 지난 7월 말쯤 사서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보고 서류를 냈는데 다른 지원자가 없어 출지에 사서를 맡게 되었다.

시급 8590원에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오후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는 없을까하고 생각하던 나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8월부터 근무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코로나 2단계 격상으로 도서관이 폐쇄되어 휴직 상태에 있다가 얼마 전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코로나 분위기로 도서관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언제다시 폐쇄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틈나는 대로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책을 살펴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기도 한다.

작은 도서관 설립 취지에 맞게 단순히 도서 대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시장 다녀오는 길에 잠시 편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꾸어 보기도 한다.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리라 다짐도 해본다.

우리 시에서는 일찍부터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형태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배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어느 때라도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가.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원인에 대해 진지한 성찰도 해본다.

우리 이웃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생업에 종사하는 현실에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이제는 평생학습도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많은 강좌가 무료로 운영되다보니 배움을 소홀히 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최소한의 수강비라도 받아서 교육내용을 좀 더 밀도 있게 구성하고 새로운 강좌들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활기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는 논어 첫 구절을 읊조리며 ‘곱게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위안삼아 오늘도 쉽 없는 배움에 나선다.



장려상

코로나에도 멈출 수 없는 봉사활동의 기쁨

정삼수

저는 제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유명 제과점과 호텔에서 제빵사로 근무하고 십여 년 제과점을 경영하다가 뜻이 있어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자로 강진으로 발령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잘 할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나누기로 했습니다. 매주 사랑의 빵을 만들어 군에서 운영하는 천사들의 나눔방에 기부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몇 년 전 귀농하여 딸기농장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우연히 우리가 나눔 빵을 받고 감동하여 자신의 딸기 하우스 세 동의 딸기를 기증하였고, 우리 동아리회원들은 딸기잼을 만들어 천사들의 나눔방에 빵과 함께 기증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수시로 나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돌아보는 분들로 지역사회에 선한 감화력을 주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빵을 나누다 보니 빵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 홈베이킹교실을 계획하고 매주 1회 재능기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진군 배달강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홈베이킹교실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강인원도 10명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체크하고 매시간 마스크 착용하고 불편했지만 열심히 과자도 굽고 빵을 만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만든 과자와 빵을 이웃과 나눠먹고 남편과 손주들에게 주었더니 잘 먹는다고 웃음꽃을 피우며 후일담을 해주니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하여 빵과 과자를 만들어 나누고 나아가 귀농인들에게 소득창출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지난 여름, 전남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집합이 금지되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중단되니 그동안 해왔던 일상이 이제 과거 속 추억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빵 만드는 것도 봉사회원들이 와야 가능한데 혼자서는 벅차고, 천사들의 나눔방도 문을 닫아서 빵을 만드는 것은 잠시 쉬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삼육이미용집수리봉사단원으로 주로 방충망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빵 만드는 것은 전문가지만 방충망을 뜯고 자르고 붙이는 일이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봉사회원의 지도를 받고 이제는 익숙하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회원중에는 수년간 이발소를 운영하신 분도 있고, 대도시에서 유명 미장원을 운영하던 이도 있어 올해는 회원들이 좀 더 기술을 익혀서 봉사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다니던 이미용염색 봉사도 갈 수 없게 되자 수요자가 생기면 봉사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발봉사를 하였습니다. 단톡방에 소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봉사활동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산발적이고 수요자와 횡수도 적어서 읍사무소 복지과와 복지관에 수요자 추천을 요청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리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라고 올렸습니다.

읍사무소와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어르신, 군청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연락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2명, 때로는 혼자라도 방충망 교체봉사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요양보호사의 요청으로 도담면에 있는 독거노인 택을 방문할 때입니다. 방충망인가 싶을 정도로 다 찢어지고 열기설기 대충 기워놓은 양파망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4시간 동안 방충망과 씨름하고 창틀에 끼워 넣었더니 미안해하며 감사해하는 어르신을 뵈니 34도를 육박하는 폭염도 장대비 같던 땀도, 모기가 얼마나 물었는지 두 다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퉁퉁 부풀고 가려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지금은 봉사활동 나갈 때 긴 팔에 긴 바지를 입고 모기기피제도 뿌리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줄어들고, 농수산물은 소비가 저조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대면 면회도 안 되고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우울증에 노출되어 있고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에서는 두려움으로 봉사활동이 중단되고 거의 대부분의 일상을 바꿔었지만 둘러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섯 살 무렵 오른쪽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이 된지 약 5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들, 뛰어난지 않은 작은 저의 능력과 재능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가 없이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엔도르핀은 행복감을 줄 뿐 아니라 뇌혈류도 개선하며,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 코로나로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봉사가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진읍 방충망 교체



홈베이킹 호두파이 만들기



장려상

“평생학습 강좌 개발은 즐거워!”

주 소 영

평생교육 지도 강사로 활동한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곳에서 아동부터 노인대상으로 노래, 춤, 웃음치료, 소통, 치매예방놀이, 레크리에이션, 그림책 감정코칭 등의 강의를 해 왔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정적으로 재능과 끼를 즐겁게 전달하며 바쁘게 생활해 왔던 행복한 일상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월부터는 모든 평생학습기관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로 평생교육이 안타깝게도 휴강 상태이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졸지에 백수가 되어 수입의 급감과 넘쳐나는 시간들로 생활이 불규칙 해 졌으며 개강 일을 알 수 없는 기나긴 휴강에 평생교육 강사로서의 열정과 활력은 저하되어 가고 야외 활동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일상은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루함도 잠시, 생각을 달리하여 휴강기의 여유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유익하고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에 몰입하여 교육 열정에 탄력과 배움을 부활시켰습니다.

2011년부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개발하여 진행해 왔으며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의 배움디딤돌 배달 강좌 4곳을 진행하여 실효를 거둔 적이 있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집콕 생활을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준비 하던 중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강좌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되었고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학습으로써 강사의 역량을 맘껏 보여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이므로 반듯이 도전 하여 성과를 내고 싶은 의욕에 잔뜩 설렸습니다.

평생교육 배달강좌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범하고 흔한 강좌 주제보다 차별화 된 강좌로써 효율성이 높아야 하므로 오랫동안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노인 강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노인 대상 강좌의 대부분이 치매예방과 건강 증진 여흥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과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책 관련 프로그램은 많지만 실버 세대 눈높이에 적합한 책과 관련 된 프로그램이 없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껴 왔었습니다.

노인층은 책을 거의 보지 않아 표현력과 글쓰기에 서툴러 세대 간의 소통이 더디며 독서하면 글자가 많은 두꺼운 책을 떠올리는 인식 개선과 동화책은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인식 역시 개선하여 책이

누구에게나 재미있는 놀잇감이 되도록 계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한 “어른 동화구연과 책 놀이 글 놀이”강좌는 동화책이 주교재이며 어른이 읽어도 주제와 교훈이 분명한 흥미로운 내용의 동화책을 선정하여 책 내용과 연관된 손 유희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가미한 유쾌한 진행으로 책이 지루한 것이 아닌 재미있는 놀잇감으로써 흥미로운 동화구연 시연과 느낌 피드백과 동화구연 역할극을 체험하며, 동화 내용의 소재를 직접 접고 오리고 붙이고 만들어 보면서, 독후활동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인지, 언어, 심리 표현, 신체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 체험은 사고력 향상과 치매예방에도 일조되며 도서관 출입 경험이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최근 개관한 도서관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도서관 이용법과 도서관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며 도서관의 개념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책 놀이 학습에서 익힌 동화구연을 마을의 어린이집에서 실천하며 배움이 봉사로 이어지도록 기회를 가지며 평생 교육을 통하여 교양을 쌓아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의 품위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 날 동안 기획한 강좌의 학습자와 학습장소로는 마을의 단합이 우수한 광양시 진상면 지랑 마을을 섭외하여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모의 학습 체험은 호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이장님께서 우리 마을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며 꼭 선정되도록 응원 해 주셨고 야심차게 응모했으며 여러 지원 강좌 중 10개 강좌만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노심초사 한 끝에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는 매우 짜릿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로 조치로 인하여 수업 시작이 더디지만 효과적인 학습준비를 완료하고 지랑 마을에 웃음꽃을 활짝 피울 날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껍고 글자가 많은 책과 그림이 없는 책은 보기도 전에 거부 반응을 보이며 특히 노인대상은 동화책을 교재로 놀이라는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독서가 백세 시대에 맞춰 고령층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려면 앉아서 읽게만 하는 독서가 아닌 놀이처럼 활동 체험과 재미있는 유쾌한 분위기 안에서 레크리에이션 학습으로 거듭나야하며 어르신 대상 책 놀이 강좌가 대중적인 프로그램으로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출강도 못하는 현 상황에서 나를 찾는 기존 강좌가 아닌 새로운 강좌 개설을 통하여 평생교육 강사로서 쇄신하는 유익한 성과를 이루어 자부심이 충만한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휴강 기간에 나태함을 슬기롭게 극복해 배워서 남 주기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발전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도록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강좌 개발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강사로 거듭나겠습니다. 힘든 시기의 평생교육 강사님들 파이팅입니다.



장려상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하 예 송

행복해야한다.. 나, 그리고 우리모두는. 삶이 선사한 귀한 시간의 선물을 안았으니까 말이다. 불행이라 생각하면 얼른 행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별일이었다, 별일! 세계가 안고 있는 흉물바이러스 코로나19가 우리삶을 덮쳤다. 삶이 한꺼번에 엎치락 뒤치락 소용돌이치고 혼란에 빠트리더니,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내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더라. 코로나19가 정말 별일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 별일들은 일상의 일들이 되고 말았다.

난 귀촌 5년차, 다행히 고흥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코로나19로부터 해제된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확진자가 전혀 없었으니 말이다.

고흥으로 내려온 것에 큰 감사함을 느껴간다. 고흥은 내게 가족을 선사해주었고 친구들을 만들어주었다. 그 계기가 여기 고흥평생교육관이 제공한 평생학습과정이란다. 난 지난 50년동안 갖지 못한 특별한 배움을 여기 고흥평생학습수업을 가졌다.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의 또다른 즐거움과 흥을 안아간다는 것이었다.

난 평생교육관에서 난타수업과 요리수업에 빠지지않는 모범학생이란다. 성적순위로 따지면 어쩔 난 꼴지이겠지만, 열심히 하는 자랑스런 개근생이다. 솔직히 난 부엌일과 요리에는 담을 쌓고 살았던 도시 커리어우먼이었고, 음식은 늘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고 관심밖의 영역이었다.

소문난 요리초보, 흥을 많지만 부릴줄 모르는 중년이다. 요리수업에 요리선생님은 늘 나에게 창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야단도 하시고, 그래도 그것이 곧 미소를 짓게 하고 춤추게 했다.

새로운 요리 배움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은 늘 설레임이 되었고, 돌아오는 배움의 시간이 신나는 순간이 되어갔다. 요리초보인 내가 그것도 전라도의 이름난 선생님께서 배움 얻는것도 영광이었고, 요리수업으로부터 원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었다.

그러게 요즘은 세상 좋아져서 SNS활동이며 메신저 세상아니던가!

수업뿐만이 아니라, SNS소통은 관계의 정들을 쌓아주게 되더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되던 날, 학습은 중단되었었다. 지속되는 집콕 생활동안은 어쩔 이 관계로부터 주고받은 비대면 소통방식에 의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따스한 위로가 되지않았던가 싶다.

맛픈 코로나19생활도 익숙해지고 거리두기 실천은 일상이 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 천연조미료 특강이 있던 날, 그야말로 화려한 외출이 되었다. 물론 매 시간의 배움이 이젠 더 특별한 외출인 셈이

되었지만 말이다. ‘젓갈고추장과 된장’ 만드는 행복요리배움터를 향해 예쁜 꽃무늬앞치마 챙겨서 교육관을 행했다. 우리 요리선생님께서 공수해오신 고흥 태양초 고춧가루, 메주가루, 그리고 각종 전라도 액젓들과 조청,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수업 함께한 베테랑 주부인 친구는 집 매실청까지 가져와서 나눠주었다.

휘이.. 휘이.. 고추장 재료 모두투하하고 팍팍 섞으며 드디어 요리선생님 주걱놓으시더니 몽땅 손으로 톱크게 저으시더라. 내겐 그 모습이 전문가의 포스, 명인의 기술아니던가! 그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것만으로도 전라도명인이 된듯한 황홀한 자극과 특별한 기쁨을 얻어갔다.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가족들을 향한 정성가득 요리하는 여인들의 시간이 요리시간였다. 한날 고춧가루와 메주가루가 명품 고흥고추장으로 탄생시키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내고, 우리 모두는 삶이 선사한 그 귀한 시간에 최선을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안은 듯 소중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시간은 여전 이어지고 있다. 힘듦과 고난의 시간을 낳았지만, 그래서 내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얼마나 지혜롭고 감사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 코로나19시대 이전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중단되고 혹은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는 미래도 상상이 되니 말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실천규칙을 열심히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요리학습에서 잘 배운 덕분에 집콕에서도 정성 안은 음식들 만들어 내면서 코로나19로부터 지친 시간을 지혜롭게 회복시킬 수 있었던 시간. 난 다시 꾸준한 배움의 시간을 안아가며 더 나은 삶을 희념한다.

누군가 그러더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가라”고.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가기전까지 우리 삶은 코로나19 환경과 함께 꺾이지않을 유연함으로, 여전 식지 않음 열정가득한 맘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며 세상살이 힘차게 안아갔으면 한다.





다른 삶을 위한 포기. 그리고 그 속에서의 만족

김 형 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일학습병행이라는 직업능력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며 보고 느낀, 이 속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20살, 21살 청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한다.

2014년 정부에서는 산업체 중심의 현장 교육을 위한 새로운 직업 교육 모델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하였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 나가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를 배워 졸업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이다.

도제학교 졸업 이후에는 기업에 채용되어 핵심인재로 성장함은 물론 전문학사 취득 과정인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까지 참여할 수 있어 학사 학위 취득은 물론 병역특례 업체일 경우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다.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에 참여하는 학생은 주중에는 업무를, 주말에 학교에 나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기가 시작되고 주말에 등교한 학생들은 주중에 쌓인 피로와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의 유혹 때문인지 처음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전담자들이 지속적인 대화와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을 조금만 잡아주니,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라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학년이 되고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점에는 2학년이 된 선배들이 신입생들의 적응을 도왔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형성되었고, 후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점, 자신이 경험한 성취감과 높아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면서 후배들의 적응을 도왔다. 학생들의 적응 및 기술 향상은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던 중소기업 제조업의 현장에서 젊은 근로자들의 입사로 인하여 사내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한 후배들을 잘 이끌기 위하여 기업의 선배 기술자들도 책을 들고 공부를 하며 학습 분위기 조성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회사가 변화하고 있다. 배움의 전파력이었다.

언젠가 한 학생과 이야기 나눈 것이 기억에 남는다. 고등학교부터 또래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어쩌냐고 물었을 때 '물론 놀고 싶지만 이런 제도 덕분에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더 많이 얻기 위해 이 정도

하는 것은 고생도 아니라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오히려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며 놀면서 돈을 쓰고 다니는데 본인은 회사에서 숙식도 제공 해주고 주말에 학교를 나와서 배울 수 있어 다른 친구들보다 저축도 많이 할 수 있다고.

“2년 후엔 대학 졸업으로 학위도 받고, 병역특례로 군문제도 해결이 되니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얻는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도 많지만 나중에는 얻는 게 더 많잖아요. 배우는 것도 많구요”

그러면서 후배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배움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자신이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대학에 나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있자면 나 자신의 20대를 돌아보고 현재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배워나가는 어린 친구들. 코로나19로 힘들기만 한 이 시대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배워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내일이 더 밝아지리라 생각한다.

2020.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성과집

발행일 | 2021. 3.

발행처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Tel. 061)285-9488 Fax. 061)283-1007
www.jntle.kr